

사계절 무더위와 한여름의 열기를 시원하게 날려주세요.
임핑 다이어스티 컨트리 클럽
 ● 광주·동광명IC 구간 광복동점도 운영
 (명동출발점IC 영수증 프린트 서비스)
 ● 우천시 9월 이후 출발요금정산제 실시
 ● 예약: www.hpdyashy.co.kr 0801-320-7700



금메달 기대주

① 배드민턴 이용대

“한국 배드민턴 자존심 찾겠다”

화순실고 출신...대표팀 막내

남북·혼북 출전 금메달 도전

국가대표 배드민턴의 막내 화순실업고등학교 출신 이용대(20·삼성전기)가 실추된 한국배드민턴의 자존심 회복에 나선다.

이용대는 이번 베이징올림픽에서 팀 동료 정재성과 함께 조를 이뤄 남자복식, 이효정과 역시 조를 이뤄 혼합복식에서 금메달에 도전한다.

현재 남자복식 정-이조는 세계 3위이고, 혼합복식은 세계무대에 알려지지 않은 비장의 카드다.

지난 2006년 1월부터 파트너로 나선 정-이조는 이용대의 네트플레이와 168cm의 단신이지만 뛰어난 점프를 바탕으로 한 정재성의 강력한 후위 공격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수비력에서 세계 최정상급인 정-이조는 세계랭킹 1위인 인도네시아의 키도-세티아완, 2위인 중국의 카이운-후하이펑 등을 비롯해 10위 이내 선수들이 엇비슷한 전력 평준화를 보이고 있어 대진 운만 따라준다면 금메달도 따낼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전통적 강세종목이었던 혼합복식은 이제는 전설적 부부가 된 듀오 김동문-라경민조의 은퇴 후 혼신을 거듭해 오다 울초 이용대-이효정, 한상훈-황유미로 최종 복식조가 결정됐다.

따라서 이용대는 남자복식과 함께 혼합복식에서도 메달을 노리게 된다.

특히 이용대-이효정조는 국제대회 경험이 적은 단점이 있지만 그만큼 외국인선수들에게 전력노출이 되지 않아 당일 컨디션과 분위기에 따라 메달색깔이 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순실업고등학교 출신의 이용대는 179cm, 70kg의 호리호리한 몸매에 연예인 같은 외모를 자랑하고 있어 열광 배드민턴 선수로도 유명하다.

이용대는 초등학교 2학년때 라켓을 처음 잡은 후 꾸준히 전국대회 우승을 통해 일찌감치 배드민턴계의 최고의 재목으로 각광받았다.

화순중시절에는 2학년 때부터 각종 전국대회 우승을 통해 태극마크를 향해 고속집주를 시작했다. 3학년 때 전국여름철종별 선수권대회 남중부 단체, 단·복식을 잇따라 석권, 대회 3관왕에 오르며 중학생으로는 첫 국가대표에 발탁돼 태릉선수촌 입촌의 꿈을 이뤘다.

화순실고에 진학한 김용대는 국가대표 출신 박찬웅 감독을 만나 단식선수에서 복식선수로 전환 하며 자신의 재능을 한껏 펼쳐왔다.

지난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복식 동메달을 획득했고, 2006년 세계청소년배드민턴 선수권대회 남자복식 우승, 아시아주니어 배드민턴선수권대회 1위(2006), 독일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남자복식 1위(2006) 등 화려하게 비상하고 있는 차세대 한국배드민턴 기대주 이용대의 베이징 메달 사냥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무쌍쌍 불참 확정...장미란 ‘금빛 미소’



중 역도대표팀 명단서 제외

○한국 여자 역도의 간판 장미란(25·고양시청)이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사실상 예약.

이는 장미란의 최대 라이벌 무쌍쌍(24·중국)이 중국의 올림픽 대표팀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최종 확인됐기 때문이다.

27일 국제역도연맹(IWF)과 중국 신화 통신에 따르면 중국 여자 역도 대표팀은 올림픽에 내보낼 남녀 9체급 10명을 발표한 가운데 장미란이 나서는 여자부 최중량급(+75kg)은 제외.

또 올림픽 여자부 53kg급에 출전하는 윤진희(22) 역시 메달을 다투 리빙(20·중국)이 불참하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조심스럽게 우승까지 기대.

야구 ‘승부치기’ 한국 긍정적

○베이징올림픽 야구에서 새로 도입되는 ‘연장 11회 승부치기’ 규정에 대해 한국 야구대표팀 사령탑인 김경문 두산 베이스 감독이 긍정적인 견해를 표명.

김 감독은 27일 “이미 결정한 규정에 대해 알기필부할 필요가 없다”며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의견.

그는 “선수들은 힘들겠지만 팬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연장전 투수진 소모가 적은 만큼) 투수진을 적

게 데려가는 우리로서는 유리한 면도 있다”고 설명했으나 “야구 자체로 보면 흥미가 반감되는 단점이 있다. 아마추어 야구에서 나오는 규정”이라며 규정 자체에 대해서는 반감을 표시.

한편 국제야구연맹(IBAF)은 26일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야구가 TV 방송에도 적합한 종목이라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연장 11회 이후 무사 주자 1, 2루 상태에서 승부치기를 하는 새 규정을 베이징올림픽부터 도입하겠다고 발표.

일본은 강력 반발

○베이징올림픽 야구 종목에 새로 도입되는 ‘연장 11회 승부치기’ 규정에 대해 한국의 메달 경쟁국 일본이 강하게 반발.

호시노 센이치 일본 대표팀 감독은 26일 “올림픽 (야구 경기) 개막을 불과 2주 앞두고 규정을 바꾸다니 어이가 없다. 반복되지는 않을지도 모르지만 강하게 항의하겠다”고 불쾌감을 표시.

일본이 이처럼 강하게 반발하는 배경에는 베이징올림픽 야구 금메달 후보 중 하나로 국제무대에서 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

볼트 올림픽 전초전 200m 금

○100m 세계기록 보유자 우사인 볼트(22·자메이카)가 런던 그랑프리 대회 200m



오륜 모양 머리 장식

27일 베이징올림픽 도우미들이 오륜마크 모양의 머리장식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에서 우승하며 베이징올림픽 금메달의 기대를 확산.

볼트는 27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대회 200m에서 19초76으로 결승선을 통과해 윌리스 스프이어먼(미국·20초27)을 따돌리고 1위를 차지.

남자 핸드볼 폴란드와 평가전

○한국 남자핸드볼대표팀이 유럽의 강호 폴란드와 평가전을 갖고 2008 베이징올림픽 메달 가능성을 타진.

김태훈(하나은행)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9일 낮 12시30분 인천 도원실내체육관에서 폴란드와 친선 평가전.

한국 남자 핸드볼은 아시아에서는 최고의 기량을 갖고 있음에도 올림픽에서는 썩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으며 유일하게 메달을 따낸 대회가 안방에서 치러진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수확한 것이 전부.



우사인 볼트(22·자메이카·가운데)가 27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런던 육상 그랑프리 대회’ 200m에서 역주하고 있다. 볼트는 이날 19초76으로 우승해 같은 종목 베이징올림픽 금메달의 기대를 부풀렸다. /연합뉴스

‘무패 챔피언’에 KO 승

마가리토, WBA 웰터급 새 챔피언

안토니오 마가리토(30·멕시코·사진)가 무패 챔피언 미겔 코토(28·쿠에르토리코)에게 첫 패배를 안겼다.

마가리토는 27일(한국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복싱협회(WBA) 웰터급 타이틀전에서 32승(26 KO)무패 행진중이던 챔피언 코토에게 11회 KO승을 거뒀다. 마가리토는 11회 초 코토를 로프쪽에 몰아넣고 소나기 펀치를 퍼부어 캔버스 위에 눕혔다. 코토는 겨우 일어서긴 했지만 다시 쓰러졌고, 보다 못한 코토쪽 코너에서 타월을 던졌다.

마가리토는 2002~2007년 세계복싱기구(WBO) 웰터급 챔피언을 지낸 체급 강자다. 코토와 대결하기 위해 국제복싱연맹(IBF) 웰터급 타이틀을 반납한 마가리토는 37승(27KO)5패를 거두며 WBA 타이틀 첫 획득의 기쁨을 누렸다.



스페인 사스트레 ‘투르 드 프랑스’ 우승 눈앞

3천500km 레이스의 대장장이 대부분 마무리된 2008 프랑스도 로일주사이클대회(투르 드 프랑스)에서 카를로스 사스트레(33·스페인)가 우승을 코앞에 뒀다.

사스트레는 프랑스 세틸리에서 생 타망 몽트르에 이르는 도로독주 구간(53km)이 끝난 27일(이하 한국시간) 전체 시간 합계 84시간1분으로 전체 145명 가운데 1위를 고수했다.

28일 에탕프에서 파리 상펠리제 거리까지 이어지는 마지막 구간만 남은 가운데 사스트레는 2위 카멜 에반스(오스트레일리아)와 격차를 1분5초까지 벌려나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생애 최초로 대회 우승을 차지할 전망이다.

美, 브라질 꺾고 월드컵 남자배구 결승행

미국이 남자배구 월드컵 대회 6연패를 노리는 브라질을 완파하고 결승에 올라 세르비아와 정승을 다툰다.

미국은 지난 26일 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2008 월드컵 국제배구대회 준결승전에서 클레이튼 스탠리의 16득점 활약에 힘입어 월드컵 5회 연속 챔피언 브라질을 3-0으로 제압했다.

지난해 이 대회 3위에 그친 미국은 월드컵 결승에 처음 진출하는 감격을 누리며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베이징올림픽 돌풍을 예고했고 2004년 아테네올림픽 우승팀인 브라질은 남자배구 세계 1위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한국 올림픽서 금 7개 예상”

美 스포츠전문 ‘SI’지 분석

“박태환 400m 금, 200m 동”

미국 스포츠전문 주간지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SI)가 한국이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 7개 정도를 따낼 것으로 예상했다.

SI는 28일자 최신호에서 베이징올림픽 302개 세부 종목에서 메달할 선수들을 전망했는데 이 예상에 따르면 한국은 양궁에서 남녀 개인(임동현·박성현)과 단체전을 휩쓸어 금메달 4개를 따내고 배드민턴 남자복식 정재성-이용대(이상 삼성전기)조, 태권도 여자 67kg급 황경선(한국체대), 역도 여자 75kg 이상급 장미란(고양시청)이 금메달을 보태 금메달 7개를 사냥한다는 것이다.

기대를 모으는 수영 남자 자유형 박태환(단국대)은 400m에서 은메달, 200m에서 동메달을 따낼 것으로 예상했다. 또 양궁 남자 개인전 박경모(인천계양구청), 체조 남자 평행봉 김대은(전남도청), 유도 남자 81kg급 김재범(한국마사회), 수영 남자 자유형 200m 박태환, 탁구 남자단식 유승민(삼성생명), 여자단식 김경아(대한항공), 태권도 남자 68kg급 손태진(삼성에스원)을 동메달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관심을 모으는 종목의 예상치를 살펴보면 야구는 쿠바-일본-미국 순이 될 것으로 전망됐고 남자축구는 아르

헨티나-브라질-네덜란드 순이었다.

SI는 종합 메달 순위에서 중국이 금메달 49개로 미국, 25개의 러시아를 앞설 것으로 내다봤으나 전체 메달 수는 미국이 121개를 따내 102개의 중국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나란히 금메달 7개가 예상된 네덜란드, 이탈리아, 6개로 평가받은 일본 등과 함께 10위권 다툼을 할 것이라고 SI는 예측했다.

북한은 여자 유도 57kg급 계순희가 금메달 후보로 평가받은 것을 비롯해 유도, 체조, 사격, 역도 등에서 모두 금 1개 은 2개, 동메달 3개를 수확할 것으로 분석됐다.